



#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자



글 | 이재도 \_ 한국화학연구원장

2007년 정해년은 600년 만에 맞는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예로부터 정해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황금돼지해에 태어나는 아기는 재물운을 타고 난다는 속설이 있는 때문인지 산부인과 병원에는 아기를 낳으려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시대에 모처럼 베이비붐이 일 전망이다. 아기가야말로 가정과 나라의 가장 큰 보배라 할 수 있다. 잘산다는 속설만으로도 아기를 낳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결국 저출산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에 기인했던 부분이 많았나 보다.

2007년 황금돼지의 해에 잘 사는 아기를 만들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사주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07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책무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는 지금까지 기적의 밑바탕을 만들어 왔다. 전쟁이 만든 폐허 속에서 자원마저 부족한 가난한 나라 한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온 것은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적의 뒤에는 과학기술자와 산업인력들의 무수한 탐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2007년은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세계경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만든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보고서는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고 유로지역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국제유가도 65달러 내외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대선을 앞둔 시점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환율하락, 북핵문제 등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을 압박할 요인이 많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새롭게 생성되고 축적되는 지식과 정보를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이 결정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에는 이러한 국가 지식기반사회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 생물, 물질 등의 과학기술기반에 더욱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화학은 물질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본과학으로서 지식융합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과학 기술인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몽골군이 추운 겨울에 수만 명의 철갑기병대를 이끌고 고려에 첫번째로 침공했을 때 압록강변에서 이들을 맞은 고려군민들은 그 지역의 추운 겨울철 기후특성을 이용하여 이들을 간단히 물리쳤다. 즉 기병이 말을 타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에 나무를 얼기설기하게 엮어 삼시간에 목책을 조립하고 그 위에 소가죽 등의 가죽을 덮고 물을 뿌려 놓은 것이다. 밤 사이에 불어 닥친 차가운 북서풍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자 기병이 돌파하기 불가능한 거대한 얼음방벽이 만들어졌다. 다음 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천하의 몽골군도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하릴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 이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고려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한 예다.

과학기술계는 지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는 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새로운 역사와 현대문명을 이끌어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온 과학기술계가 다시 한번 노력하여 2007년 황금돼지의 해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모두가 황금돼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주역이 되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